

# 원희룡 장관, 대한변협 찾아 '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' 적극 동참 요청

## - 대한변협에 법률전문가로서 피해자 법률지원에 최선 당부 -

□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21일 오후 12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개최된 '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구제조치 마련을 위한 긴급회의' 참석하여,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 구제에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진정성 있는 협조를 요청하였다.

□ 원 장관은 오늘 긴급회의에 앞서 지난 19일(수) '전세사기 피해자 법률·심리 상담 지원 긴급 대책회의\*'를 주최하고, 유관기관들과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고,

\* (참석) 대한변호사협회, 한국심리학회,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, 전세피해지원센터장 등

○ 피해자들이 지원대책을 인지하지 못해 피해구제에서 누락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없도록 전체 유관기관들이 협력하여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조속히 수립 가동시키자고 뜻을 모았었다.

□ 국토부는 어제 20일(목)부터 '찾아가는 상담서비스'를 미추홀구에서 운영하기 시작했으며, 향후 전세사기 피해 발생지역 전체로 서비스의 폭을 확대할 계획이다.

○ 원 장관은 복잡한 법률절차로 전세사기 피해구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대한변협 소속 법률전문가들이 직접 찾아가 자문해 주는 것은 큰 도움과 위로가 될 것"이라고 강조하며, 피해자들이 법적구제를 위한 대한변협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재차 당부하였다.

2023. 4. 21.

국토교통부 대변인